

화려한 무대 · 조명 · 노래 창작뮤지컬 ‘마타하리’

EMK뮤지컬컴퍼니 제작, 주요 스태프 외국 창작진 옥주현의 안정된 연기력 · 뛰어난 가창력 등 돋보여

올해 최대 기대작인 ‘마타하리’가 창작 뮤지컬의 또 다른 길을 보여줬다. 29일 밤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빌드 프리미어를 통해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에 뒤지지 않는 화려한 무대와 조명의 위용을 드러냈다.

EMK뮤지컬컴퍼니는 ‘모차르트’ ‘엘리자벳’ ‘황태자 루돌프’ ‘퀸텀’ 등 유럽 중세를 배경으로 한 라이선스 뮤지컬로 입지를 다져왔다. ‘마타하리’는 이 회사의 첫 창작뮤지컬이다. 그간 노하우를 반영하듯 주요 스태프는 외국 창작진으로 꾸렸다. 실존 인물인 마타하리를 뮤지컬로 만들자고 EMK뮤지컬컴퍼니에 제안한 프랭크 와이즈홀과 미국 뮤지컬 연출가 겸 안무가 제프 칼슨이 주축이다.

주요 스태프만 보면 과연 한국산 창작뮤지컬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뮤지컬 ‘드라큘라’의 4중 텐테이블 무대로 호평 받았던 오필영 무대 디자이너의 무대의 메카니즘은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원형 모양이 아닌 한쪽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텐테이블은 끊임없이 다양한 공간감을 입체적으로 연출한다. 대형 뮤지컬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도맡는 김동진 음악감독과 그녀가 이끄는 더 엠시(MC)의 탄탄한 연주력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컴퍼니와 미국 스태프가 협업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재로 만든 뮤지컬은 오히려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넘어서며 또 다른 창작뮤지컬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앞서 총무아트홀이 영국 작가 M W 셸리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 ‘포라렌슈타인’이 국내 창작 무대로 같은 사례를 보여준 바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2중 스파이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총살당한 아름다운 무희 ‘마타하리’ (마카레타 거트루다 웰러)의 실화가 바탕이다. 마타하리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인 파일럿 ‘아르망’, 마타하리에게 스파이가 될 것을 제의한 프랑스군 대령으로 부활한 사병감을 지니고 있지만 점점 그녀에게 이끌리는 ‘리두’의 이야기가 섞여 들어간다.

대만 인물들의 감정에 기반해 이야기를 밀고 나가다보니 종종 이야기가 늘어진다. 이는 느낌이 든다. 빠른 무대 전환의 속도감을 쫓아가지 못하니 흐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대사에 감정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음악인 ‘언더스코어’로 지루함을 덜어내려는 시도는 좋았으나 러닝타임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25~27일 프리뷰의 러닝타임은 3시간 가량이었다. 라두 대령의 아내 캐서린의 1막 솔로 넘버, 앙상블들의 무대 등을 덜어내며 10분 정도 줄였는데 조금 더 압축할 필요가 있다.

‘마타하리’의 지난한 인생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라인은 따라갈 만하다. 어릴 때 자신을 겁탈한 삼촌, 허너를 겁탈한 전 남편 등 남자에게 수차례 배신감을 느낀 마타하리가 아르망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연다는 설정은 사실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나 뮤지컬 무대에서 남녀 간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마법 같은 순간으로 수궁이 된다.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아르망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1막의 흥미를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배우들도 성공적인 프리미어의 공헌자다. ‘옥주현의 옥주현’에 의한 옥주현을 위한 ‘수사’이 나올 정도로 옥주현의 마타하리를 기대를 모았는데 그녀는 이를 감을 훌륭히 해냈다. 1910년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지난함을 표현한 이



창작뮤지컬 《마타하리》

뮤지컬에서 넘버마다 일맞은 연기력을 과시한다. 주요 라이선스 작품의 국내 초연을 도맡는 류정현은 역시 안정된 연기력을 선보인다.

자신의 욕망으로 마타하리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라두 대령에 품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버려진 음악인 그가 너무 많은 고음을 소화해야 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창이 종종 불안해지는 했으나 송창의는 순수한 아르망의 캐릭터에 더 없이 어울렸다. 노래 춤 뿐 아니라 잠깐 보여주는 연기력까지 갖춘 앙상블들의 실력이 탄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6월2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마타하리 옥주현·김소향 아르망 엄기준·송창의·정택운 라두 대령 류정현·김준현·신성록, 프로듀서 엄홍현 협력 프로듀서 김지원 편곡 & 오케스트레이션 & 음악감독 제이슨 하울랜드, 한국 음악감독 & 지휘 김동진, 한국어가사 & 협력연출 권은아, 드라마투르그 이단비, 무대디자이너 오필영, 의상 디자이너 한정일, 러닝타임 17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6만~14만원. EMK뮤지컬컴퍼니. 1577-6478 /정해은기자

창조적 소리꾼 만정 김소희 명창 특별전 개최

고창관소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명창 만정 김소희 명창을 보다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관소리박물관은 고창출신 국창 만정 김소희 특별전 ‘만정제(晩正節)의 전승과 미래 전(展)’을 마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전시와는 달리 고인이 된 만정의 소리를 제작자들이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 창조적 계승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

만정의 지고한 관소리 전편을 전승하고 있는 제작자들 중심으로 각 명창들의 개인 유품, 상패 등 73점의 자료와 만정제 세 바탕소리의 전체 음원, 이를 전승하고 있는 인형연, 안숙선, 이명희



명창 등 제작자들의 전체적인 음원을 음원 청취기 6대에 총망라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전승자의 공연 동영상 등을 영상 패널로 짜입해 있게 전시해 만정제의 실체와 그 전승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김소희(金素熙) 명창은 1917년 고창 흥덕면에서 태어나 천부적인 재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여기에 삶과 예술에 대한 자기성찰과 노력을 더해 완숙한 관소리의 예술적 경지를 이룬 대한민국 대표 여성명창이다.

만정 김소희는 창조적 소리꾼으로 손꼽힐 정도로, 박동실 정응민 명창에게 관소리를 배워 평생에 걸쳐 독특한 미학적 특징을 지니는 관소리를 만들었는데 이 소리를 만정제라 하며, 현재 만정제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로 구성돼 있다.

만정제 관소리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중 하나라도 전편을 계승하고 있는 제작자들은 박계향 신영희 인형연, 이명희 박안덕 명창 등이며 이들은 만정제의 진정한 전승자로 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넷마블, 신작RPG ‘콘’ 출시

넷마블게임즈가 올해 첫 번째 신작 콘(Knights of Night)을 30일 출시했다.

콘은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으로 두 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다루는 듀얼액션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직접 꾸민 맵(아지트)에서 이용시간 대결을 펼치는 ‘침략전’ 시스템이 모바일 액션 RPG 최초로 시험적으로 적용됐다.

액션 RPG를 처음 접한 이용지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유저 가이드 ‘나침반’ 시스템도 갖췄다.

출시에 앞서 진행된 프리미엄 테스트에서 콘은 사전등록자 100만명, 재접속률 85%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지훈 넷마블게임즈 본부장은 “콘은 액션 RPG 장르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라며 “그래픽과 타격감에 중점을 두고 향상시키는 등 더 많은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 폐막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0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막작과 폐막작 그리고 영화제의 변화된 구성인을 발표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개막작으로 로베르 뷔드로 감독의 ‘본 투 비 블루’를 폐막작으로는 류승완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정했다.

이번 해에는 3년 만에 폐막작과 폐막작 상영작을 부활시켜, 영화제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7일인 마지막 날까지 영화축제 분위기를 줄곧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재상연은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소개된 인연과 함께 감독의 높아진 위상 및 독립영화제의 성장을 반추해 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더불어 영화제는 영화제의 열개에도 변화를 줬다. 올해 영화제는 공간이 일원화 되어 고시동 ‘영화의 거리’에서만 치러진다.

이는 지난해 영화제가 고시동과 효자동에 양분돼 열려 축제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영화의 거리’는 영화 상영관과 기반시설이 집결돼 있어 축제 분위기 조성은 물론 참여자들의 영화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료 주차장에 야외 상영장도 개설해 축제 장소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화제는 21편의 상영작을 500회에 걸쳐 상영키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화차 편성으로 관객들이 보다 다채로운 영화를 선택하고 관람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에는 김승수 조직위원장과 이충직 집행위원장, 김영진 수석프로그래머 및 이상용, 장병원 프로그래머가 함께 했다.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정체성 및 대안 독립 정신을 잃지 않도록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넥슨, 모바일 RPG ‘리터너즈’ 공개

넥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넥슨 모바일 The 1st in 2016’ 행사를 열고 모바일 메니지먼트RPG ‘리터너즈’를 공개했다.

리터너즈는 메니지먼트RPG라는 장르로 역사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영웅을 수집하고 성장시켜서 전략에 따라 팀을 꾸려 PvP(Player vs Player) 대전을 하게 된다.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영웅을 육성하고 탐험과 레이드 등 화려한 전투를 즐기는 RPG의 기본 요소는 물론 수많은 영웅을 각각의 특성과 상성을 고려해 팀 단위로 육성, 최적의 팀 조합으로 비슷한 실력의 유저들과 리그 및 토너먼트를 즐기는 등 메니지먼트 게임의 요소까지 담아냈다.

넥슨은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리터너즈’의 첫 시범 테스트를 한다.

이번 테스트는 안드로이드OS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리터너즈’ 개발을 총괄하는 합선우 넥슨 디렉터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RPG에 감독의 관점에서 지휘하고 즐길 수 있는 메니지먼트 요소를 결합했다”고 말했다.

넥슨은 ‘테일즈러너 리볼트(제작 리온엔터테인먼트)’와 ‘드래곤캐스트2 레전드 퍼블리싱(아이덴티티스튜디오)’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 연내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이 글로벌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한 모바일 캐주얼 액션 레전드 ‘테일즈러너 리볼트’는 인기 온라인게임 ‘테일즈러너’의 모바일 버전이다. 원작의 고유한 감성과 캐릭터를 계승했다.

‘드래곤캐스트2 레전드’도 인기 온라인게임 ‘드래곤캐스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이다. 넥슨이 중국을 제외한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

노정환 넥슨 국내모바일사업본부장은 “테일즈러너 리볼트를 통해 캐주얼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31일>

<p>▷쥐띠 46년생: 예상외로 좋은 결과는 거둘 수 있는 운. 60년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니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72년생: 경쟁자로 인해 속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미리 방지하라. 84년생: 인적이 없으니 물도 겁내하면 하는 운이다.</p>	<p>▷소띠 49년생: 크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결손함을 잃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 61년생: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 구설이 따르는 운.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아직은 기운이 미약한 상황이니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p>	<p>▷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니 처음부터 실패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행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승은 욕망으로 인해 선결을 잃어 생긴다.</p>	<p>▷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63년생: 배우는 것에 관대하라. 75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공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 것.</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쪽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64년생: 문서로 인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산도 나노와 같으니 자중하라. 88년생: 먼저 알았으니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다.</p>	<p>▷범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확신하지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p>	<p>▷말띠 54년생: 쫓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화기부른 가리양이라, 심판만 익히라. 78년생: 공전음이 약하니 무리한 자술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양띠 55년생: 문서에 걸림이 비추니. 67년생: 평안에서 권태로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분 일이 생기니 한편으로는 성가신 일들도 발생한다. 91년생: 큰 욕심만 무리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원숭이띠 55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9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섭생에 주의하라.</p>	<p>▷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설도 함께 따르니 주의하라.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안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p>	<p>▷개띠 49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9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p>